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문 대통령의 올바른 안보와 동성애 정책 기대

한국교회연합,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 기대”

전직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어려운 국면 속에서 당선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국가 안보와 동성애 문제에 대해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이 10일 밝혔다.

한교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있어서 친북이나 심지어 중북이나 하는 오해들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가 일차적인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분명한 우방인 한미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국의 사드 문제 및 일본의 과거사 몰이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처해야 하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충분히 북한이나 주변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와 사회,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성애는 단순히 선호도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며, 가정의 근간이 깨지게 만드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흔

드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전례없는 정치적 상황을 맞고 있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음을 인식하고 수많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또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정치를 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NPNEWS]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욱되게 하느니라(잠언 14:34)

나라는 여호와와 의 것이요 여호와와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라(시편 22:28)

기도 |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국가 내외적으로 많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애들아, 너희들은 알고 있니?



- 잠비아 엠버시 찬스 교회(Embassy chance church)에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아이들. 두 눈을 꼭 감은 아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일까? “애들아, 너희들은 알고 있니? 지금 눈을 감고 너희들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서 너희를 택하시고, 죄로 죽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아야!”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 내가 천국 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구하자. 곧 그분을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언 8:17)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35)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청년의 때에는, 그게 옳아 보였습니다. 그게 옳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옳았다기보다 그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던 일들이 몇 가지는 있을 겁니다. 한 번밖에 못 산다고 해서 ‘일

생(一生)’이라 한다지요. 연습할 수 없기에 경험한 지혜로 인생을 안내해주는 분이 부모요 스승인거죠. 그런데 엄마 치맛자락 놓기 싫어하던 당신이 독립투사로 사춘기를 거치며 당당히 당신 인생의 왕으로 등극했고, 이후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원대로 되었습니까? 맘대로 했기 때문에 후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돌아보니 맘대로 못해서 후회되는 것보다, 맘대로 했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것이 더 많습니다. 되돌릴 수만 있으면 되돌려 놓고 싶은 것, 깨끗하게 삭제하고 싶은 것

있겠습니까? 그러나 후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국 인생의 후반전에서 당신의 오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에서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 반드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죽어도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오류 중 가장 큰 오류는 당



일러스트=박남희

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이 오류에 대한 후회가 죽은 다음에 온다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회는 지옥에서 하는 후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 날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지금 마음 문을 열고 맞아들이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당신을 후회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GNPNEWS]

INSIDE

02 뉴스 | 아시아 베트남 북부, 몽족 기독교인 종교자유 찾다

05 인터뷰 | 정동진 선교사 “나는 자격없는 아바, 자격없는 선생이었습니다.”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사울의 잔재를 보라

08 뮤즈 인 아트 | 뮤지컬 ‘더 북’(THE BOOK) 말씀에 생명을 바쳤던 ‘롤라드’(Lollard)들의 이야기

아시아

베트남 북부, 몽족 기독교인 종교자유 찾다

정부에 진정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 요청



▶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된 솜폼 마을 몽족 성도들이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

베트남 지방관리와 지역주민들의 박해로 거주지에서 쫓겨나 어려움을 겪던 북부지역 소수종족 기독교인들이 국가법에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

최근 본지 통신원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 선라도 솜폼의 몽족 마을 주민 30여 명이 전 공산당원에서

회심한 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정부에 공식 진정서를 제출한 뒤 허락을 받아 베트남의 공식교단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중순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마을 민방위대와 청년단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하고 돼지우리라 닭장, 가재도구 등의

파괴로 약 5억 동(약 25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핍박으로 기독교 신자인 다섯 가정은 국경 지역으로 쫓겨났다.

그동안 베트남의 지역 당국 관계자들은 한때 자국과 전쟁을 벌인 미국의 종교라는 인식 때문에 기독교인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핍박해왔다.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은 관련 법규나 행정사무는 물론 공권력에 대해 대처해 본 경험이 없어 그저 인내하며 박해를 감내해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솜폼 성도들은 선라도 인민위원회와 종교국 등에 현재 베트남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이 이들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솜폼 마을 성도들은 최근 집으로 돌아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경찰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GNPNEWS]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무슬림 목자들 400여 명 기독교로 개종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에게 악명이 높은 플라니 무슬림 목자들 400여 명이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최근 “극단주의 무슬림인 플라니 목자들 400여 명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그들의 과거 행적으로 봤을 때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이 가운데 7명은 심지어 안수까지 받았다”고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플라토 주 파니암에서 코친교회를 이끌고 있는 코퍼 세복 목사는 4월 30일 플라니 개종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세복 목사는 “플라니 목자들의 회심은 플라니 종족에 속한 이들



▶ 플라니 무슬림 목자들에게 희생된 이들의 시신을 묻고 있는 나이지리아 교인들(출처: CMC News 영상캡처).

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면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갖자.”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중부지역의 플라니

목자들은 그동안 수천 명의 기독교인을 몰아내고 그들의 토지를 차지하며 유목을 해왔다. 이들의 습격과 위험은 나이지리아 테러단체인 보코하람보다 위협적으로 여겨져 왔다. [GNPNEWS]

한국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헤브론캠프 열린다

기간 7월 3~6일, 원서접수 5월 22~6월 9일



헤브론원형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 연령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7 헤브론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를 7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실시한다.

다음세대가 또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캠프

프는 소그룹활동, 스킷드라마 등으로 구성,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교 홈페이지(theschoolhebron.org)에서 원서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회비 10만 원. 문의 ☎ 070-4369-7651, 010-8459-1718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5.1~5.14)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멕시코서 라디오방송 언론인 또 피살...2개월 새 6번째 희생

‘언론인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멕시코에서 최근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언론인이 6번째로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됐다고 3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전 세계에서 지난 7년간 99명이 비판적인 보도 탓에 피살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하나님. 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멕시코의 잔악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행동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들에게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해주시옵소서.

ISIS 아프간 1인자, 미군 특수부대에 피살...공식 확인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1인자 압둘 하십이 지난달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7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실은 “압둘 하십이 동부 낭가르하르 지역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에 모든 사악한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가 ISIS대원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미 끝났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주시십시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교도소서 죄수 440여 명 탈옥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페칸바루에 있는 시아랑 봉국 교도소에서 죄수 442명이 집단 탈옥했다고 현지당국의 말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교도소는 수용정원인 300명의 6배가 넘는 1870명을 수감해왔다.

하나님. 범죄자들이 창궐하여 수용할 수 없는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범죄자임을 깨닫고,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에 참여되게 하옵소서. [GNPNEWS]

알림

독자 여러분의 간증, 믿음의 고백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한 간증이나 믿음의 고백을 나눠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 070-7417-0408, 010-6326-4641, gnpnews@gnmedia.org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5월 4주~5월 5주

5월 4주(5.22~5.27)	5.29~6.2(매일 14시~19시)
▶경기 구리 / 큰빛교회 (서**)010-3388-2574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최**)010-4202-0079	5.30~6.2(매일 06시~12시)
5.22~23,25~26(매일 10시~12시)	▶전북 전주 / 전주시향교회 (정**)010-8295-6889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6.2(08시~20시)
5.22~26(매일 14시~19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6.2(22시)~3(22시)
5.26(08시~2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6.3(06시~18시)
5.26(22시)~27(22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010-5408-6348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기도참여 문의
5월 5주(5.29~6.3)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5.29~30,6.1~2(매일 10시~12시)	070-4803-9026~7, 010-5424-4641 www.prayer24365.org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특별기획 |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의 공흠은 죄인에 대해 형벌을 경고하는 것”

미국은 지금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주된 이슈로 세속적인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존 맥아더 목사의 현실 진단과 대안 제시를 4회에 걸쳐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의 시대를 살고 있다. 성의 혁명과 동성애자의 혁명의 결과로 생각 자체가 너무나 부패해서 되돌릴 방법이 없게 되어버린 상태인 ‘상실한 마음(롬 1:28, debased mind)’의 시대를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냉철한 사고를 해야 하고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흠 없는 마음과 명석한 사고를 지녀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 지도자들과 대법원 등은 문자 그대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상실한 마음이 판사에게까지 이르렀다. 이번 주, 최고위직에 있는 한 판사에게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판사의 책임 중 하나는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정부의 위임 아래서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판사직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 전역에서 결혼증명서를 발행하는 기독교 공무원들 역시 그 일을 할 수 없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대규모의 인수인계가 벌어질 것이다. 고위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대법원에서 지시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로 교체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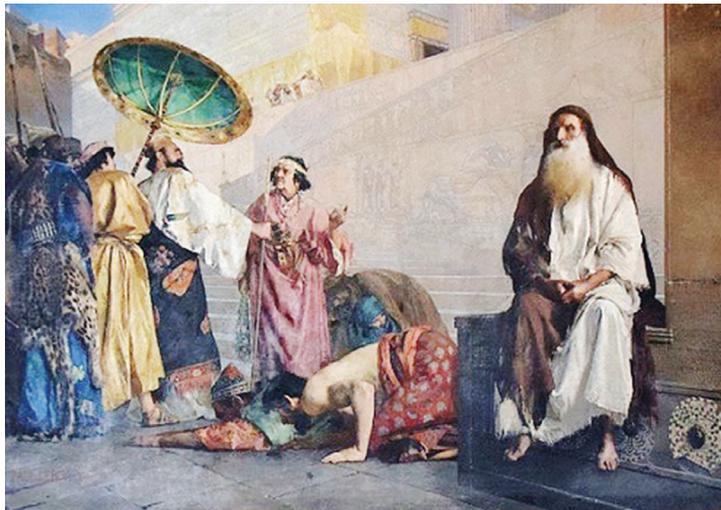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상실한 마음은 이제 최고위층에까지 다다랐고, 이들은 다른 모든 곳에 상실한 마음을 요구할 것이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처럼 대법원 안에 진리를 잘 아는 판사가 있다 해도 그는 동성애를 ‘옳다’ 할 것이다. 이 상실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소수자가 될 것이다. 이것도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수였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구별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정의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성경이 우리의 법이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과 미국법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다.

상실한 마음이 사회를 지배할 것

최근 우리 사역 팀은 마스터즈 신학교 웹사이트에 동성애에 관한 글을 올렸다. 몇 시간 후, 그 글을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우리가 입장을 고수하면 고소당하는가? 당연하다. 게다가 교회와 연관된 보험회사들은 “우리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문제에 대한 법률소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며 통지해왔다. 이제 교회가 홀로 맞서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적 무신론, 진리의 거부, 도덕적 상대론은 늘 사탄의 제국에만 연해 있던 것들이다. 지금까지 미



▶ 폴 알렉산더 드로이의 <하만과 모르드개>, 1884(출처: The torah.com 캡처).

국은 그 맹렬한 공격에서 교회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보장된다. 곧 실감하게 될 것이다.

핍박은 그리스도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세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직장을 잃을 것이다. 교회의 세금면제를 없애려는 운동과 수많은 소송으로 교회를 법정에서 세우려고 움직일 것이다. 어떤 대학이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성애자에게 입학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지원하는 모든 기금과 학자금 대출의 제도를 철회할 것이다.

보스턴선교사훈련학교(Boston Missionary Training School)는 이 공격을 받았다. 이 대학은 동성애자의 입학을 거부하고 동성애자들의 기숙사 생활에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대학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설립 후

130년의 역사를 가진 그 학교는 대학 인가를 지키기 위해 14명의 동성애 찬성 주도자들을 배출했다. 그들은 이 싸움에서 굴복했다.

핍박과 박해가 쏟아지며 힘겨운 나날들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날이 머지않았으니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준비가 끝났고 기습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것이다.

세상에 굴복한 선교사학교 등장

‘엎드려 절하다’, ‘무릎 꿇다’ 이 말은 구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우상에게 절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러나 신실한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르드개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다니엘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그러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바울은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다. 이사야 5장 20절은 윤리 도덕을 뒤집는 자에게, 정의를 뒤바꾸는 자에게, 선을 악으로 바꾸는 자에게, 악인들과 범죄한 나라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말한다. 신약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동성애에 사로잡힌 이들을 공흠히 여겨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베푸는 가장 큰 공흠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공흠을 베푸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세상이 이것을 싫어하여 우리를 고난과 핍박으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마지막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살전 1:5)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는 번성해간다.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더욱 크게 자라고, 사랑이 강해지고 더욱 크고 풍성해진다. (2015.7) <계속> [GNPNEWS]

월드 포커스

미국 성직자의 정치적 발언 허용, 기업 및 종교단체 피임의무 지원 사라져



▶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출처: catholic herald.co.uk 캡처).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 행정명령에 서명,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4일 ‘국가기도의 날’에 가진 연설 직후, ‘자유 연설’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유는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신앙공동체에 대한 재정적 위협은 끝났다. 아무도 설교를 검열하거나 목회자를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존슨 조항’ 완화돼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0년의 미국 역사에서 종교자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종교자유 행정명령으로 달라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성직자들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성직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해온 ‘존슨 조항’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법을 근거로 성직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해 왔다. 이 법에 따라 성직자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면 그 교회나 종교단체는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92년 미국 뉴욕 주의 한 교회는 목회자가 대통령선거에서 빌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설교했다고 면세 혜택을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복음주의

교단과 로마 가톨릭 등은 연방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막고 있다며 존슨 조항 등 각종 관련 법규의 철폐를 요구해왔다.

종교단체나 기업 자율 확대

둘째, 직원 등 피고용인의 낙태 비용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의무적 부담해야 하는 ‘오바마케어(ACA)’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피임에 반대하는 교회, 종교대학, 민간기업 등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업원 건강 보험 중 피임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나 기업들의 자율권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GNPNEWS]

기획 | 다시 집으로 (5. 끝)

“나에게는 언제든 돌아갈 집이 있다”

미국의 중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동성애와 마약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된 아들 크리스토퍼 위안과 아들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단을 앞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의 용사가 된 어머니 안젤라 위안의 수기 '다시 집으로'(대성출판사, 2017)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안젤라, “죄 사함을 받았도다”

크리스토퍼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며 무디 신학교의 정보와 입학원서를 구해달라고 전해왔다. 내년 7월이면 출소였다. 아들이 이렇게 변화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과연 무디 신학교에서 수감자의 원서를 받아 줄까? 그즈음 남편과 나는 델러스에서 열리는 한 선교대회에 참석했다. 실수로 강연자가 앉는 주빈 테이블에 앉아 당황했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른 무디신학교 총장 조 스토클 박사였다. 실수였지만 분명 우연은 아니었다. 강연 중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리고 스토클 박사가 강연을 마치고 왔을 때 물었다. “무디에서는 죄인도 받아주나요?” 크리스토퍼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했다. 박사가 물었다. “아드님은 죄 사함을 받았나요?” 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네, 제 아들은 죄 사함을 받았어요.”

크리스토퍼, “거룩한 뜻대”

복역한 지 21개월이 지났다. 형기를 마치려면 15개월을 더 복역해야 하지만, 모범수로 지낸 덕분에 5개월이 더 줄어들었다. 나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 성경이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구절을 찾으려고 성경에 있는 모든 장을 한 줄도 빠짐없이 정독했다. 하지만 단 한 구절도 찾지 못했다.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동성애와 성욕에 이끌려 살든지, 아니면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 동성애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든지 둘 중 하나였다. 내 갈 길은 분명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나는 오랫동안 게이로 태어났다고 믿고 살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내 정체성은 ‘동성애자’ 혹은 ‘이성애자’와 같은 성적 지향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었다. 동성애의 반대

는 이성애가 아니라, 거룩함이었다. 즉, 거룩함을 뜻대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동성애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나를 계속 짓누르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투항해 그분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를 것인가? 복음을 접하고 나서 나는 줄곧 이 문제를 점검하고 있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게 꼭 필요한 한 분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주님,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2001년 2월, 시카고의 재활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교도소 생활은 사실상 끝난 셈이었다. 자유인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7월까지 남은 형기를 채우면 된다. 부모님과 함께 시카고 교외에 있는 집에 도착하는데, 벽면 여기저기에 노란 리본이 100개도 넘게 매어 있었다. 현관에서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재소자를 기다리는 연인이 마당에 있는 나무에 한가득 노란 리본을 매어둔 가슴 뭉클한 사연의 “오래된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줘요”라는 노래였다. 리본마다 나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더 이상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



▶ 크리스토퍼를 기다리며 리본을 달아놓는 안젤라 위안과 레온 위안(출처: Christopher Yuan캡처).

랑했다. 어머니가 눈물이 그렇그렇 해서 나를 껴안았다. “크리스토퍼,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어머니의 여정이 나의 여정만큼이나 길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에 왔어요. 엄마, 제가 집에 왔어요.” 탕자와 같이 머나먼 이국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던 나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

그 뒷이야기

2001년 7월, 공식적인 형기를 마친 나는 무디신학교에 정식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4년 뒤에는 음악과 성경언어 연구로 신학학사 학위를 받고, 휘튼대학원에 진학해 성경주해 석사과정을 밟았다. 졸업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생활과 HIV바이러스 및 에이즈를 주제로 강연하는 사역에 나를 부르셨다. 강연은 차츰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4개 대륙까지 확대되었다. 나는 이 일을 몹시 사랑했다. 부모님은 나의 중보자이자 동역자로 수차례 함께 강단에 섰다. 하나님은 내가 버틸 수 있도록 내 몸을 지켜주신다. 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 지금도 출소하던 날을 떠올리면 하나님과 부모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를 감싼다. 이제 나에게는 언제든 돌아갈 집이 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 [GNPNEWS]



선교 통신 | 부흥의 현장 (2)

“예기치 않은 만남 통해... 신앙 자유 되찾다”

베트남 북부 지역 라오까이에 거주하는 몽족 그리스도인 짱 아강 목사는 현재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한때 공산당 간부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는 압수한 성경을 읽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현재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의 간증을 소개한다. <편집자>

교회에 이와 같은 피해가 계속되자 사빠에 있던 저는 구명을 청원하기 위해 공인교회가 있는 하노이 시내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북부 총회 본부에 도착해서 총회의 목사님들에게 사빠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경찰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들어와 해를 미칠까를 염려하며 저에게 빨리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책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뭐길래 복음을 따라 산다

고, 지금 하노이까지 내려와서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기도한 그 순간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당신, 혹시 몽족 아니에요? 여기 하노이에 내려와서 뭐하고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빠에서 교회가 받고 있는 핍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돈은 있습니까? 밥은 먹었습니까?”하고 물었고 저는 “30만동(약 15만 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13만동이 남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의 지갑에서 10만동을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여기에 다시 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녹음기와 캠코더를

가지고 왔고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노이의 인권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응웬 반 다이라는 사람이며 베트남 정부와 UN 인권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저를 돕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저는 그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고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종교 관련 전문 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한 후 15일 만에 중앙 경찰부

의 보증서를 받아 평안 가운데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보호자이신 주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11월 22일에는 UN의 대사와 검사관들 그리고 중앙의 국회 감찰관들이 라오까이도 인민위원회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해 조사했으며 따핀음의 인민위원회에 내려가 저와 함께 그들을 면담하였고, 사빠의 인민위원회에서 믿음

으로 인해 핍박받았던 가정들에게 따핀음 인민위원회가 보상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후 2005년 초에 따핀 교회는 300여 명이 모이게 되었고, 교회의 담임 사역자로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부적인 결정이었을 뿐 외부적으로는 매주 예배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경찰과 민방위 대원, 군인들이 매주 예배드리는 처소와 우리 집을 찾아와 총을 꺼내 가슴과 어깨에 겨누었습니다.

그 해 6월 저는 중국에서 사빠를 찾아온 몽족 목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중국 국경으로 데려갔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접경 지역에 사는 소수 부족들은 여권 없이 국경을 들락날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으로 넘어가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국경 수비대들에게 잡혀 여러 번 구타를 당했습니다. <계속> [GNPNEWS]



▶ 몽족 교회에서 전통복장을 입고 예배드리는 자매(왼쪽)와 몽족의 주택.

번역. L 통신원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자격 없는 아با, 자격 없는 선생이었습니다”

유독 어렵고 힘든 고백이 많았다. 인터뷰는 중간중간 끊어지다 다시 이어졌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었다.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끊임 없이 마주하며, 옛생명에 대해 완전히 ‘죽은 자’가 되기까지 정동진 선교사의 고백을 들어보았다.

-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데... 2000년 7월 1일. 고3이던 제 딸이 저한테 혼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가 절에 빌어서 동자로 들여보내는 태몽을 꾸고 태어났을 정도로 불교로 운명지어졌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조계사 법회에 다니고, 대학에서도 대불련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 어떤 것인지 겪으면서, ‘이런 것을 허용하는 부처라면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딸이 다니던 동네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시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 몰래 혼자 교회에 다니고 있던 아내도 너무나 충격이 커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됐죠. 그런데 몇 달 동안 교회 목사님이 저 한 사람을 위해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절망하고 있으니까 메시지 하나하나가 마음에 닿았던 거죠. 그렇게 주님이 방향을 못 잡고 마음 둘 곳 없었던 우리 부부를 인도해주셨어요.”

-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3년 정도 주일예배, 새벽예배, 교회 성경공부반을 하면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3년 가을. 한 교회 주최로 열리는 신앙훈련에 참여하게 됐어요.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2주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회건축 현장에서 아들을 잃은 한 목사님이 절절한 사랑으로 죽은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남은 두 딸에게는 썼지만, 이미 죽은 큰딸이 받지 못하는 편지를 나는 쓰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뭐지? 나는 딸을 위해 편지 한 장 안 쓰는 알팍한 놈인데, 저분은 어떻게 죽은 아들을 위해 저런 편지를 쓰나? 나는 대체 어떤 놈인가?’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다음 주까지 편지를 쓰지 못하고 있다가 하루는 훈련시간 보다 일찍 가서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편지를 쓰고 학교가 시작되는데, 스태프들이 불러주는 찬양이 있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이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딸을 잃어버린 자격 없는 아با. 그런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얘기해주시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렇게 5주 과정이 끝나고 간증자로 섰어요. 사실 준비도 안 돼 있고, 변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증자로 나서서 아직 실제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한 거죠.”

절망의 시간들

- 실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루는 간증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했어요. 저는 무언가 내 자신이 변한 줄 알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집에 왔는데, 그 잔소리를 듣자 딸에게 냈던 화를 똑같이 내고 발로 아내를 쳤어요. 한 시간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똑같은 입으로 분노하고 아내를 발로 차는 나를 보고 경악했어요. 이건 뭐지? 변하지 않는 나에 대한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 학교에서 기독교사로서 있었죠. 클럽활동 담당으로 기독교반을 맡고 학교에서 수요일예배를 드렸는데 4명에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담배를 끊은 값으로 간식을 사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었고, 그 클럽 활동으로 가을 축제 때 학교 내에서 이미 중단되었던 찬양제를 다시 여는 기회도 주셨어요. 소문을 듣고 주변 교회에서 악기 세트를 가져오고, 수화와 찬양을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자원해서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입시 구조상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위해서 소수만을 붙잡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절망해보니까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아이들이 눈에 보였어요. 수업시간에 포기하고 그냥 옆드려있는 아이들 등에 손을 얹고 속으로 기도해줬어요. 축제 때는 제일 말쑥꾸러기였던 그 녀석이 도와주더군요. 주님이 하고 계셨죠. 그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하게 하셨지만, 학교에서도 제 한계가 드러났어요.”

-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아이들은 때리지 않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면 쉽게 봐요. 그걸 이용하기도 하죠. 학기 시작하고 6개월 동안 화를 안 내다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 주변이었던 두 아이를 혼냈는데, 한 아이의 집에서 아이가 병원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혼을 내려던 녀석은 그동안 말 안 듣고 도망 다니던 녀석이었었는데, 다른 녀석이 다친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나는 분노로 내 딸을 잃어버린 자격 없는 아با고, 이



절망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은 정동진 선교사(헤브론선교대학)

분노로 애매한 착한 녀석 골절하게 한 자격 없는 선생이었어요. 학교 앞 교회에 들어가 옆드려서 주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사표를 내야겠다 생각했죠. 그때 주님이 ‘네가 아이들 앞에서 나를 인정할 수 있겠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수업 전에 아이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죠. 제가 평소 가장 혐오하던 일이었으니까요. 미션스쿨도 아니고 공립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편향적인 것 아니냐고 생각해왔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그다음 학기 초에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나는 너희를 분노로 내지는 정죄하고 혼내면서 교육하길 원치 않는다. 축복하고 싶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라.” 학기 초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럼 내가 기도로 시작할게.”하고, 들어가는 모든 반마다 묻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수업하게 하셨어요.”

아이들을 축복하며

-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학부형 전화가 있었죠. 불교 신자라는 분도 항의하시고, 교장실에도 불려가고요. 무리하게 억지로 하면 도리어 예수님께 누가 될 수 있어서 잠시 멈출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요청해왔어요. 학생들은 곤고했어요.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원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반에서 패싸움이 일어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서 학부모까지 가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힘 있는 아이가 자기에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갔어요. 대학입시에 치명적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 아이에게 유리한 그 어

떤 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생활기록부에 단 한 줄도 써주고 싶지 않은 나를 보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절망에 또 부딪혔어요. 이미 복음 앞에 섰는데, 십자가 통과한 거 맞아? 나 죽은 거 맞아? 겉으로는 복음으로 달려오고 있었지만, 옆어지고 자빠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복음을 생명으로 살아낼 수 없었던 그 곤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 복음 앞에 서신 과정이 궁금한데요.

“십자가의 총체적 복음이 선포되고, 그 앞에 죄 된 나의 존재를 하나하나 비취보는 신앙훈련과정에 참여했어요. 지금은 선교사가 된 셋째 딸이 저보다 먼저 복음 앞에 서고 제게도 권했어요. 그런데 웬지 겁이 났어요. 거기 가면 정말 죽겠구나 하는 불안함이랄까. 게다가 일주일간의 훈련기간 중 마지막 날이 학교 개학일이었어요. 학생들도 다 오는데 담임이 안 오는 건 있을 수 없죠. 못 가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섬김이로 참여하는 아내와 딸을 차로 훈련장소에 데려다주려 갔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저 대열에서 빠지면 마치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께 전화로 통보하고 5박6일의 훈련에 참여했어요. 돌아와서 시말서 쓰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다 공표하고 생활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도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어요.”

- 거듭되는 절망 속에서도 복음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궁금하네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죠. 복음 앞에 선 후 중보기도학교에 다녔는데, 요르단으로 아웃리치를 갔어요. 그때 약속

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뿐 아니라 그날 주시는 말씀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놀라웠어요. 그런데 아웃리치에서 돌아오고 시간이 좀 흐르면 말씀이 안 보이고 다시 곤고해졌어요. 그러면 말씀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갑갑해져서 또 훈련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러다 한 집회에서 복음의 사관이 되기 위해 아예 6개월 합숙훈련을 받는 지체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군인처럼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어도 저기는 가면 안 되겠다.’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꼭 보내시더군요(웃음). 2015년 2월, 정년을 4년 앞두고 명예퇴임을 하고 그곳에 갔어요. 가정에서는 둘째 딸과 단절된 상태였어요. 결국 ‘분노하는 나’ 때문에 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복음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만 남은 삶을 얻었다고 결론 냈지만, 수료 후 다음 발걸음이 늦춰지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 또다시 곤고해졌어요. 장작 불 하나 꺼내놓으면 금세 사그라지는 것처럼 복음은 혼자서는 살아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 참으로 긴 절망의 시간이네요.
 “네. 다시 선교관학교 훈련생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게 뭐지? 실체가 안 된 게 뭐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마음 속에서 실제 동의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헌신한 헤브론선교대학 공고를 봤을 때, 이 대학의 비전과 가치가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거기에는 빠지지 않고 동참하고 싶었어요. 나를 복음에 드리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얼마나 완악한 자였는지, 바로바로 순종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재보던 삶은 내가 주인 된 삶이었지요.”

- 대학에서 영어로 섬기시나요?

“아뇨. 제게 허락된 자리는 영어와는 상관없는 자리였어요. 조금 당황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어를 부인하고, 운동장이라도 쓸 수 있겠냐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었어요. 나는 평생 영어교사만 해서 그 외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나마 운전면허증 하나만 있는데 그걸로 섬기게 하세요. 운동장을 쓰는 것이든, 운전 섬김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미래의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으로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라도 그냥 감사하고 좋아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은혜의 복음(3)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사울의 잔재를 보라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흥을 누리고 있었다.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무엘을 이어 그의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워지자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삼상 8:7~8)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근심하며 기도하던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동기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특별한



일러스트= 임이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 19:5~6)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역사상 그 어떤 나라가 이런 소명

(召命)을 받았던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반역의 길을 택하고 말았다. 이들의 죄가 사울이라는 왕을 낳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낳은 사울

사울의 일생은 이스라엘의 반역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왕위에 오른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놀랍게도 그의 실패한 인

생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왜일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와 사울의 인생에서 드러난 반역이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사울의 반역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드러났다. 사무엘이 약속대로 나타나지 않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번제 드림 권한을 가로채고 폐위 당했다. 왕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넘어갔다(삼상 13:14).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또다시 불순종한다.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던 것이다. 그레놓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웠다.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사무엘 앞에서 오히려 변명하고 둘러대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왕권을 이용했다

(삼상 15:30). 사울, 그도 처음엔 겸손했다. 하지만 폐위 당한 후 끝까지 왕의 자리를 내놓지 않은 채, 오히려 미쳐 날뛰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잡아 삼키려 했다.

복음 앞에 서면서도 자아를 끄집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는가? 처음엔 겸손했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이빨을 드러냈던 사울, 결국 그의 삶은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자였음을 증거하고 말았다. 2천 년 전 같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뱀처럼 꼬리를 틀고 앉아 왕권을 행사하려는 이 무섭고도 끄찍한 사울의 잔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2016.5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LOG미션 대표)



2017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모집



헤브론원형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1. 모집 대상

2017학년 현재 4학년, 6학년, 8학년, 10학년 (2017년 현재 해당 학년이 아닐 경우, 한 학년(1년)에 한해 하향지원 가능)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에 희망하는 사람

2. 원서 교부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교부합니다(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원서 접수 기간: 2017년 7월 11일(화)부터 ~ 2017년 7월 28일(금) 소인까지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문의 (아래 문의처 확인)

3. 입학설명회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2시~5시, 장소는 「입학 설명회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17년 6월 12일(월)부터 ~ 2017년 7월 1일(토)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할 것
*원서는 입학설명회에서 교부합니다.

4. 입학전형 일정

1차 서류심사 (1차 합격자 발표 2017년 8월 5일)
2차 면접 및 필기고사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017년 8월 19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17년 9월 5일(화) 입학식

문의 및 접수처

hebronschool@hanmail.net



헤브론원형학교 입학사무처
070-4369-7651, 010-8459-1718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 (31952)

Interview

<5면에 이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 지금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나요?

“아멘이죠. 매일 아침 묵상에서, 말씀기도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지식의 동의를 넘어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소망하게 해주셨어요. 나만 보고 달려오던 내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나를 위한 기도조차 못했고, 백 년도 못 살고 죽어가는 나 같은 자에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 분노하는 나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주셨나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로가 뜨거운 줄 알면 손을 안 댄다.’ 그 말에 동의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잘하다가도 한순간 놓치게 되고, 때때로 넘어져요. 그러나 이제 난로에 손을 대지는 않아요. 분노로 딸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대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사울이 창

을 던질 때 다윗은 그 창을 피하고 다시 수금을 쳤어요. 공격하지도 방어하지도 않는 그 다윗이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창이 날아오면 그 창을 바로 던질 뿐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창까지 던지는 자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원하지 않았어요. 현실은 똑같죠. 화를 내야 하는 충분한 이유는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난로를 다시 또 짚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또 오더라도 죽은 자로 있을 거예요. 다윗과 같이 창이 날아오면 피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이 길을 갈 거예요. 내가 더한 자였으니까요.”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고 싶어요. 이 세대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둘째 딸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데, 관계가 회복되고 같이 말씀기도 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GNPNEWS]

E.J.





“마음의 빗장을 열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누군가 내게 삶에서 가장 기뻐던 때를 묻는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고 싶다. 주님과 함께 가고, 서고, 숨 쉬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일평생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체적 복음 앞에 서게 되었다. 그 후 진짜를 알고도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멍청한 짓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도 앞치락뒤치락하기를 반복했다. 극적인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나는 문화사역을 하는 한 선교단체에 헌신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긴 했지만, 헌신 후 주님 앞에서 여러 훈련을 받으며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겼다. 공동체 훈련을 통해 관계, 생활, 사역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울 수 없던 나는 하나님을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해했다. 어떤 선함도 내게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셨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연자가 되어주겠다.”(시 32:8, 새번역)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고집도 부러보고 이를 꼭 깨물고 버티 보기도 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론 내리지 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결론 뒤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빛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향해 잠가뒀던 마음의 빗장을 열어 은혜를 구했던 이후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 모든 상황마다 주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주님은 나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알 수 없는 평안함으로 마음을 지켜주셨다.

다음세대를 섬기며 누리는 은혜

난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에게 희생하고 싶지 않아 독신주의자를 고집했다. 그런데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맡게 된 역할은 다음세대를 섬기는 일이었다. 미술을 공부했던 나는 배우들의 배경막이



일러스트= 박범희

나 만들어주는 무대미술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만했다. 그런 내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림자처럼 하찮아 보였다. 이 부르심이 내게 선물이라고 말해주었던 지체들의 어떤 말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종신토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를 위해 얼마든지 봉사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더욱 절망은 깊었다. 주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삶은 지옥 같았다.

가끔 누군가 연고도, 관련도 없이 어떻게 헌신했냐고 물으면 “주님이 헌신하라고 하셨어.”라는 대답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한 지체와의 대화 속에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문화예술선교사”라는 기대감이 내게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평생 예술을 하면서 살고 싶어 예술에 내 전부를 걸었다. 그러나 선교사로 헌신하면서도 은근히, 그리고 교묘하게 ‘선교사’라는 이름 앞에 붙여진 ‘예술’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사역의 특성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가 많음에도 보이지 않

는 자리에 있으면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죽었는가?’를 매 순간 확인하게 된다. 아니, 나를 부인해야 설 수 있는 자리는 결코 익숙하거나 적응되지 않고, 믿음으로만 설 수 있다는 것을 ‘아다’(‘체험하여 알다’라는 뜻의 히브리어)하여 알게 된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루가 천년 같고, 부인하면 천년이 하루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 같다.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실 필요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도 없었을 예수님. 진리 앞에서 나의 옛자아가 마구 부대길 때면,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누군가 또 나에게 ‘선교사의 삶은 어때?’라고 묻는다면 너무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를 부인하고 선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GNPNEWS]

문수임 선교사(문화행동아트리)



“어차피 죽을 목숨, 찬양을 중지할 수 없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다시 북조선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인철은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사실 나이 많지 않은데, 내가 그때 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왔을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그는 선교사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저 다시 북조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 갔을 때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늙장을 부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될 테니까 빨리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걱정스레 말했다.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저는 그동안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언제나 제 위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베풀고 조선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인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인철의 고백을 들은 선교사의 마음은 뿌듯



출처: 어린이 카타콤 캡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철은 재빨리 준비를 마치고 길을 나섰다.

“아버지여, 저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 종을 보살필 힘이 없나이다. 인철 형제가 안전부와 보위부에 불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고 대가를 치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주님은 아시오니, 그에게 감당할만한 힘을 주소서. 혹 심한 구타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신앙이 꺾여 공산 치하에 믿음이 빼앗길까 두렵사오니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는 성경 한 권을 챙겨 떠나는 인철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의 기도로 배웅했다.

인철이 떠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에 돌아가던 인철이 붙잡

혀 노동교화소에 끌려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밤 시간을 이용하여 강을 건너다 잡혔던 것이다. 짐 속에서 성경이 발견되는 바람에 인철은 모진 고문을 받아야만 했다.

감옥은 어느새 교회로

한동안 쓰러져 있던 인철은 바다의 찬 기운을 느끼고 정신을 차렸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살아있음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의 입에서 한 가락의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선교사를 만나 처음으로 배웠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빼뺏어진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기쁨이 배어 있었다.

그 음률은 창살을 넘어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들렸다. “잠 좀 자게 조

용히 해!”라고 불평이 날법한데 감옥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그런데 곧 다른 수감자들이 여기저기서 따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합창이 된 것이다.

다음 날 인철은 더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 이유는 하나, 예수를 부인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도 인철은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개미 소리처럼 들리던 인철이의 찬양소리에 한두 명이 더해지면서 찬양이 계속되었다. 형태는 없었지만 어느덧 감옥은 교회로 변해 있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중지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던 인철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소식을 들려주는 한 형제의 모습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2. 끝>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끝까지 견디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양팔로 안고 축복하신 아이가 있다(마 18:2). 그 아이는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로 추정된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1세기 말 안디옥 교회 3대 감독이며 사람들에게는 ‘데오포루스(Theophorus :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불렸다. 당시 트라야누스 황제가 그를 심문하면서 사형을 선고했을 때 그는 주님께 “제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안겨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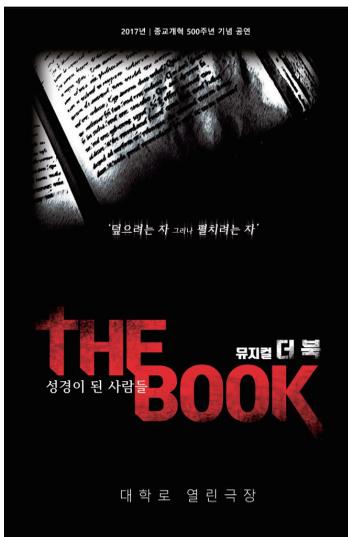
그는 사형을 위해 로마로 압송되면서 일곱 개의 서신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로 알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앙 고백의 차원을 넘어 믿음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GNPNEWS]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s

뮤지컬 '더 북(THE BOOK)'

말씀에 생명을 바쳤던 '롤라드'(Lollard)들의 이야기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뮤지컬이 있다. '종신 선교사들의 극단' 문화행동 아트리오의 뮤지컬 '더 북(THE BOOK)'

2014년 창작된 이 작품은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120%를 기록하며 크리스천 뮤지컬 가운데 '레미제라블'급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아트리오는 이 작품을 2017년 한 해 동안 공연하기 위해 배역과 넘버

(노래)를 늘리고 영상을 도입하는 등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오디션 을 통해 1년 단기에술선교사(배우) 들을 뽑아 세웠다.

1월 2일에 개막해 4개월이 넘도록 쉬지 않고 달려온 이 뮤지컬은 지금까지 별다른 홍보비를 쓰지 않고도 놀라운 결과들을 쏟아내고 있다. 1월 객석 점유율 105%, 2월엔 108%, 공연계 비수기인 3월과 4월에도 93%와 90%를 기록해 4개월 평균 객석 점유율은 99%, 총 관객 수는 무려 2만 명을 넘어섰다. 170여 석의 소극장에서 넉 달 동안 이만여 명이 찾아왔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것일까? 뮤지컬 '더 북'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관객후기들을 살펴보면, 열광의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뮤지컬은 진짜다!"라는 것이다. 단순한 연기가 아니고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행동 아트리오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더 북'은 성경을 가리키는데, 오

직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롤라드'(Lollard)들의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롤라드라는 이름은 당시 '중얼거리는 자', '가라지', '위선자', '독버섯'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종교기득권자들에 의해 경멸의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들은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활동한 존 위클리프의 후예들이었는데 당시 가톨릭은 번역된 성경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을 살인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라드들은 성경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성경 66권 중 한 권의 이름을 취해 그 성경을 모조리 외워 광장에서 외쳤다. 말 그대로 '성경이 된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된 사람들

종교개혁은 결코 몇몇 주요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성경을 전하기 위해 화형대의 등불이 되었던, 적어도 수천만 명의 롤라드를 비롯한 평범하지만 진리를 추구했던 서민들을 통해 쓰인 역사였다.

'덮으려는 자 그러나 펼치려는 자'라는 이 뮤지컬의 결제목(Head

copy)으로 알 수 있듯이 이 뮤지컬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리와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과 억눌린 자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그것을 펼쳐 보이려는 자들 사이의 대결이 두 시간의 러닝타임 동안 매우 밀도 있게 전개된다.

물론 이 뮤지컬은 진실한 주제와 연기 외에도 많은 매력들을 지니고 있다. 귀에 착착 감기는 선율과 노래들, 14세기 유럽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고풍스러운 의상들, 결코 잊을 수 없는 피날레 씬 등이 바로 그런 매력 포인트들이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에 온통 관심을 두며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이 뮤지컬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과연 이 시대의 롤라드가 될 것인가?' 지금도 진리의 새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순종과 기도와 인내를 통해 마침내 이 길의 끝에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는다.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는다.

[GNPNEWS]



문화행동 아트리오 제공

▶ '더 북'의 한 장면.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은혜의 유격훈련... "나, 예수가 전부요!"

나이 50이 넘어 색다른 경험을 했다. 내가 소속된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유격훈련에 참여했다. 유격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실제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그대의 믿음의 사공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라는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의 교제가 실제 되는 시간이었다. 유격훈련을 신청하고서 처음에는 공격이 만만치 않았다. '혹시 객기는 아닌가?' 그러나 주님께 나를 마음껏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유격 2박 3일 중 첫째 날은 안 쓰던 근육들을 깨우는 시간이었다. 동작은 엉망진창이었다. 주님은 다만 나를 보고 계시는 듯 했다. 그동안 '맞다, 틀리다'로 인식하던 나의 사고가 깨져나가는 순간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일어나는데 온 몸이 석고같이 굳어 있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어제 배웠던 동작들을 시작하는데 동작이 하나

도 생각이 안 나는데다가 굳은 몸 때문에 더욱 안 되었다.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팔 벌려 뛰기 1800개 한 번 해봅시다." "뭐라고, 몇 개?", "1800개!" 그러나 숫자는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팔 벌려 뛰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빈혈로 눈앞이 하얘졌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신 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부르짖어 봅시다. 목소리를 크게 내 봅시다. 움직여봅시다. 쉬지 않습니다." 조교들의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얼마나 나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하고 계신지! 얼마나 나를 격려하시고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신 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부르짖어 봅시다. 목소리를 크게 내 봅시다. 움직여봅시다. 쉬지 않습니다." 조교들의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얼마나 나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하고 계신지! 얼마나 나를 격려하시고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신 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부르짖어 봅시다. 목소리를 크게 내 봅시다. 움직여봅시다. 쉬지 않습니다." 조교들의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얼마나 나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하고 계신지! 얼마나 나를 격려하시고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지!

팔 벌려 뛰기가 1600개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미 나는 손을 들 수도, 다리를 들 수도,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그때 다른 지체들이 눈에 들어왔다. 한 사람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도 영망이

지만 지체들도 영망이었다. 숫자는 계속 지나가고 있었다.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십자가로 간다고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엉망진창이겠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내치지 않고, 그런 지체들을 내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주님은 힘없이 움직이는 팔과 다리, 흐느적거리는 나와 저들의 모습대로 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보고 계셨다.

엉망진창인 동작, 그걸 보시는 주님은...

드디어 '1799' 숫자가 외쳐지고 마지막 동작으로 끝이 났다. 제대로 잘한 것을 세어본다면 하나, 둘 정도였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1800개 네가 했어."라고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보실 주님 때문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뭘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일러스트=이수진

없구나! 그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할 일만 남았구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님 팔 벌려 뛰기 1800개 아니라 1만8000개라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요.'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은 통증도 사실이고 석고처럼 굳어서 앉고 일어섬이 고통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은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과 성령의 격려를, 지지를, 응원을,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감격과 기쁨이 넘쳤다. 지나간 여정에도 그렇게 함께 하셨던 주님. 육체의 한계와 나이, 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라도 주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져 감을 알게 하셨다. 지금도 통증이 남아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의미가 없어졌다. 오직 예수가 전부일 뿐이다. [GNPNEWS]

김이순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4. 27 ~ 5. 10 (가나다 순)

개인

고명희 김경선 김민성 김수미 김승수 김유남 박승은 서법일 서영숙 안수경 이란영 이 순 이정희 이준진 이지영 정영숙 조상국 조성실 조형광 최근희 최영환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광주새순교회 김포전원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목자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양덕원칼리교회 은혜선교회 죽전교회 춘천침사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